

# 만성조현병환자 어머니의 감사경험

홍주은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Gratitude Experience of Mothers who cares Child with Chronic Schizophrenia

Ju-Eun Hong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ong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조현병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의 감사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일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 중 조현병 진단 후 만 5년이 경과된 회원의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고, Giorgi(1997)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조현병 자녀 어머니의 감사경험은 18개의 하위구성요소와 감사할 것 없이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 같은 나, 새싹처럼 움트기 시작하는 감사, 포용을 통해 나무로 자란 감사, 자족과 바람의 열매를 맺는 감사, 베품으로 인해 더 풍성해진 감사의 5가지 구성요소가 도출되고, 역동적 순환체계로 진행되어감을 확인하였다. 이로서 조현병 자녀 어머니의 감사경험은 원망, 수용, 용서, 소망, 나눔의 순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상담과 조현병 자녀 어머니들의 개별 또는 집단교육 및 증재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주제어** : 조현병, 자녀, 어머니들, 감사, 경험, 질적연구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deeply the essence and meaning of gratitude experience of mothers who cares child with schizophrenia. This study was analysed through the use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Giorgi.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bservation, and field records with five motheres who cares child with schizophrenia. Data analysis revealed 18 sub-components, 5 components: 'I'm like fallen seed on barren soil without gratitude', 'gratitude coming into bud like sprout,' 'gratitude grown up into a tree through tolerance', 'gratitude bearing fruit of self-sufficiency and desire', and 'gratitude getting much richer with giving. The results from the study contribute to promoting understanding of the gratitude experience of mothers who cares child with schizophrenia and will be helpful for development of positive family nursing intervention.

**Key Words** : Schizophrenia, Child, Mothers, Gratitude,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조현병은 환각이나 망상, 와해된 언어와 행동, 정동둔마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 기능의 수행에 어

려움을 초래하며, 발병 이후 만성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1].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sup>th</sup> edition, 이하 DSM-5). 즉, 발병과 진단 이후 가정에서 독립해야 하는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과 퇴원을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rant from Dong Yang University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Ju-Eun Hong(nurse0413@dju.ac.kr)

Received November 14, 2019

Revised December 16, 2019

Accepted January 20, 2020

Published January 28, 2020

반복하게 되어 독립하기 어려우며, 국가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주거 서비스도 부족한 상황으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된다[2].

이에 조현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급성기의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에 혼란과 두려움, 충격 등으로 발병에 대한 사실을 부정하기도 한다. 또한 조현병으로 인한 고통, 분노 알 수 없는 병에 대한 불안감, 긴장과 죄책감, 만성적인 우울과 슬픔[3] 등을 경험하게 된다[4]. 특히 조현병 자녀를 주로 돌보는 어머니들은 환자들이 가장 의존하는 대상임과 동시에 편하고 쉽게 생각하여 함부로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약물관리 및 치료적 활동 등의 전반적 생활에 도움을 주는 어머니들은 조현병 자녀로부터 폭력과 같은 신체적 상해를 입기도 하고[5], 부모로서의 자괴감과 절망[6]을 경험하기도 하며, 점점 자기 삶에 대한 관심은 고사하고 전인적 영역에서의 건강문제를 겪는다. 이는 가족 내 건강문제의 악순환[2]을 유발시켜 조현병 자녀들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녀의 발병 전부터 현재까지 돌봄의 주보호자로 가족들 중에서도 환자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다. Kim et al.[7]의 연구에 의하면 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조현병 환자 삶의 질 차이는 없었으나, 환자가 가장 신뢰하고 대화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였다. 그러므로 조현병 자녀의 어머니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어머니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처와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가 요구된다.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데 있어서 개인의 감정과 생각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는 의미와 가치 추구에 대한 로고 테라피[8], 임종을 앞둔 환자의 수용과정[9], 긍정 심리[10]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Peplau [11]의 대인관계 간호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와 대인관계의 만족에 있다.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우호적인 감정으로는 애정과 사랑, 기쁨, 위로, 감사 등이 있다.

그중에서 감사(感謝, Gratitude)는 인간의 잠재된 긍정적 강점의 하나로써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으로 자신에게 긍정적 잠재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타인에게까지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12,13]. 그러므로 자녀의 질환으로 인해 전인적 영역에서 부정적 경험을 겪는 어머니들의 감사 경험 여부는 어머니와 조현병 자녀의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중증질환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의 경험 연구는 주로 양육과 돌봄 과정에서 부담감, 스트레스,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에 관한

연구들이다[3,4,14,15].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경험에 관한 연구[16]도 주로 청소년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과 의사소통에 관한 주제로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머니의 감사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조현병 자녀 어머니의 감사경험의 본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조현병 자녀 어머니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과 연구에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현병 자녀 어머니의 감사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조현병 자녀 어머니의 감사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조현병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의 감사경험을 이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개인의 경험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통합하여 그 본질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Giorgi [17]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2.2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조현병 자녀 어머니’들로서 참여자 특성 및 연구방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심층면담을 위해 연구자와 친밀감 형성이 잘 되어있고, 자기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에 따른 증상과 정도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대상자 중, Modestin 등[18]이 제시한 회복의 기준에 따라 5년이 경과된 대상의 어머니로 한정하였다. 셋째, 조현병 자녀 어머니의 생생한 경험을 자료로 수집하고자 현재 조현병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어머니로 선정하였다. 더욱 진실한 면담 자료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 연구자와 사전 면담 후 최종 선정하였고, 새로운 개념이나 속성이 나타나지 않고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여 최종 5명을 선정하였다. 연령은 50대가 2명, 70대가 2명, 80대가 1명으로 평균연령은 68세이며, 종교는 기독교 2명, 불교 1명, 천주교 2명이었다. 환자와

의 관계는 딸이 2명, 아들이 3명이었고, 참여자들이 돌보는 조현병 자녀의 현재 나이는 20대 한 명, 30대 한 명, 40대 두 명, 50대 한 명으로 최소 9년에서 최대 30년의 치료기간을 이어오고 있었다.

## 2.3 자료수집

자료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이뤄졌고 새로운 경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포화시점에서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집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매회 60~90분정도 소요되었고, 참여자에 따라 2~4회까지 시행되었다. 면담질문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와 같은 일상적 질문을 시작으로 '(조현병)자녀를 돌보는 중에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셨나요?', '평소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고, 어떤 상황에서 또는 누구에게 감사를 경험했나요?'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고, 그 순간에도 혹시 감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감사를 느낄 때의 기분은 어떠했나요? 감사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등의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이어갔다. 자료의 누락 방지와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해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취와 메모를 하였고, 필사 이후 참여자와 직접 또는 우선과 전자메일을 통해 추가 수집한 자료도 포함하였다. 면담할 때 기록한 현장노트와 필사본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를 추천했던 사례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자의 왜곡 및 오류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조현병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의 '감사' 경험의 본질을 전 생애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Giorgi [17]의 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1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들의 진술문 전체를 자유롭게 반복하여 읽었고, 이때 현상학적 환원(Epoche)의 태도로 조현병 자녀 어머니들이 경험한 감사를 전 생애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2단계에서는 의미단위를 구분해 가는 작업으로 참여자들의 경험의 현상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고, 의미 간에 전이가 일어나거나 차별화된 진술이 보이는 부분을 구분하였다. 이어서 중심의미(하위주제)들을 통합하여 주제를 추출하였다. 개별적 의미 단위들을 원 자료와 비교하면서 감사경험을 심리학 및 간호학적 언어로 변형시켰다. 이때 가능한 한 조현병 자녀 어머니들의 일상에서 충분

히 공감할 수 있는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4단계에서는 학술적 용어로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구조로 통합하기 위해 각각의 참여자들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구체화하는 상황적 구조 기술을 구성하였다.

5단계에서는 상황적 구조기술을 통해 전체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을 일반적 구조 기술로 통합하였고, 최종 5개의 주제와 23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IRB Np. 14-098-1)을 거친 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자에 대한 익명성과 비밀보장, 중도 포기 가능성, 연구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녹취에 대한 동의 등의 내용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 연구참여자를 최대한 보호하였다. 또한 연구가 종결된 이후 연구결과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개별 심층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하였다.

## 2.6 연구자의 준비 및 연구의 엄정성 확보

연구자는 16년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별면담 기술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교육과 상담,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러 편의 질적연구를 수행하며 질적연구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통하여 질적연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서 Lincoln과 Guba [19]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독립성, 일관성, 적용성을 근거로 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분석 결과는 참여자들과 직접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연구자는 개인적 편견과 판단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고, 현상학적 환원에 따른 '괄호치기(Bracketing)'를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개입하지 않고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1인의 검증을 받음으로써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자료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시도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상황적 구조기술

5명의 조현병 자녀 어머니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진술된

감사경험의 의미는 상황적 구조적 기술로 통합하여 18개의 하위주제와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1 참고).

### 3.1.1 주제1. 감사할 것 없이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 같은 나

#### 3.1.1.1 내려놓을 수 없는 부담감

참여자들은 조현병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식하며 긴 시간동안 쉽 없이 돌봐야 하는 걱정과 현재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부여되는 역할들로 인해 이중적 부담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재는 내가 어떻게든 다스려야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주지만, 우리 사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아파서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형제들한테도 짐이 안 되게.(참여자 1)

그런 아들 뵈는데 편히 살겠어요? 항상 내 마음에 이만한 돌이 있는 거 같아요. 가법지가 않아 항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부모에게 큰 숙제예요.(참여자2)  
“지금도 진짜 맘이 안 편해서(눈물 고임) 장남이 이리니까 둘째한테로 호적을 옮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참여자3)

#### 3.1.1.2 후회스러운 세월

참여자들은 결혼에 고된 시집살이와 조현병 자녀를 돌보느라 본인의 인생을 제대로 누리보지 못한 자신을 비하하거나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조현병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야단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신속히 치료받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인생이 없는 거 같아서. 30년 넘게 평생을 살면서 여행 한번 못 다니고 오로지 집에서 병든 자식 보살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작에 빨리 그때(신혼) 이혼해버리고 내 삶을 찾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으려나... 내가 멍청하고 순진해서 못했죠.(참여자 2)

고3 무렵에 이런 문제에 걸리는 애들이 많아... 그 당시 병원에 빨리 안 보낸 게 가장 후회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무식해서 그랬어. 그때 서둘러서 병원을 보냈으면 괜찮았을텐데.(참여자1)

어릴 적부터 내 기대에 차지 않으니까. 그런 앤 줄도 모르고. 이제 야단을 많이 맞았죠. 작은애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사랑을 뺏기고.(참여자3)

#### 3.1.1.3 정신질환 발병에 대한 원망

참여자들은 자녀가 정신질환에 발병하게 된 원인이 자식을 잘 못 낳은 자신과 자녀에게 건널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준 가족, 자녀의 학교 교사 등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항상 '내가 자식을 잘 못 낳아서 애가 저렇게 항상 모든 지능이 떨어지고 비실비실해.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내 운명이지'생각하죠.(참여자 4)

나는 몰랐어요. 선생님도 자세한 애길 안 해주고, 별 일 없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수학공부를 잘 못해서 수학년 생님이 몇 대 때렸다고... 그 뒤로 애가 시험은 백지로 내고, 수업시간에 사물함 위에 올라가서 잠이나 자고 있고 그랬던 거예요.(참여자 2)

어릴 때 놀랜 적이 있어요. 4-5살 때 바보가 있었지. 놀렸다고 집으로 쳐들어왔어. 애를 구석에다 놓고 잡아 죽치더라고. 때리고. 그 때서부터 애가 이상해지더라고.(참여자 5)

#### 3.1.1.4 돌봄 과정에서의 몸과 마음의 고통

참여자들은 조현병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위축, 수치심, 병적 증상 앞에서의 두려움, 답답함, 다른 자녀에게 소홀한 것에 대한 미안함, 타인에 대한 부러움과 서운함 등의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심지어, 조현병이 발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개인시간 없이 주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도맡아 오면서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쳐있음을 토로했다.

그 때는 도저히 병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참여자 3)

이 부모들이 겪은 거는 말도 못해요...어느 어머니는 그래요. 어떤 때는 자식하고 같이 약 먹고 죽었으면 편하겠다고 그 말씀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참여자 4)

저는 여행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때문에 10년을 제가 매여 있었지요. 나갔다가도 눈 뒤집어진다 하고 하면 돌아와야 되고, 항상 긴장하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참여자 3)

제일 부러운 건 호화주택에서 잘 살고 그러는 것보다 똑똑한 자식들 둔 친구가 제일 부러워요... 저는 아주 마음이 괴롭고, 서글프다고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참여자 4)

그때 제 속이, 얼마나 썩었던지 내가 암이 왔어. 유방암이.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참여자 1)

3.1.1.5 조현병 자녀를 위해 건넨

참여자들은 남편 및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원망과 분노, 설움 등을 겪으면서도 조현병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긴 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께 존지를 전하며 특별히 부탁해야만 했다고 표현하였다.

나, 영감 생각했으면 안 살았어... 우리 ○○이 때문에. 집에서 왈가왈부하면 ○○이 마음 불편할까봐, 내가 저주는 거야. 그냥 못들은 척하고(참여자 1)  
근데 가정이 편안해야 하나까 내색 안하고 그냥 사는 거지.(참여자 2)  
지금 제 심정은 이혼하고 애 돌하고 내가 맡아서 살고 싶거든요. 우리 아저씨 안 보고 싶거든요.(참여자 3)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항상 선생한테 인사하고 봉투 내밀고 그렇게 안했으면 재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요. 후시 퇴학이라도 시킬까봐 담임한테 노상 쫓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랬어요.(참여자 4)

3.1.1.6 의지할 데 없는 궁핍한 삶

참여자들은 집안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물질적 궁핍으로 인해 혼자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하였다. 또한 정부로부터 혜택 받는 것도 창피하고 불편하게 느꼈으며, 이러한 생활 속에서 '감사'는 생각해 볼 여유조차 가져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거(편물)를 하다가 IMF 오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할 게 없어서 막막했지.(참여자 1)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눈물로 내가 눈물 자국으로도가 애들을 키웠어요. 혼자서. (감사 경험에 관한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감사, 그런 거 없어.... 그냥 밥만 먹고 살았지. 그러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장애자 2급 한사람은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요. 이리 창피한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그래.(참여자 5)

3.1.2 주제2. 새싹처럼 움트기 시작한 감사

3.1.2.1 조현병 자녀에 대한 따뜻한 시선

참여자들은 조현병으로 인해 제 위치와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 안쓰러움을 느끼는 한편, 오히려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으며 어머니를 돕는 자녀라고 표현하였다. 즉 자식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의

관점이 아닌 어머니로서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도 뭐 반대해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버럭하는 거는 없어요(사실과는 다름)... 조금 둔하긴 둔하지. 그래도 마음은 한없이 착해요.... 제가 뭐 좀 사가지고 와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내려와서 번쩍 들고 가고 내려다 줄 것 있으면 말 안 해도 지가 내려다 주고 그래요.(참여자 1)  
우리아들이 참 착하고 똑똑해요, 근데 사회생활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가서 일하잖아요. 너 집 안일 해줘. 내가 너 용돈 줄게. 그러면 잘해요. 인지 능력은 다 정상이에요. 애는 다 정상이에요.(참여자 2)  
우리 애가 성격이 철저해요. 약 먹는 것도 시간이 되면 딱 지키고 놓치지 않아요. 센터에 가는 날은 아침에 지가 필요한 것 가방에 다 정리해놓고, 약속시간도 잘 지켜요. 오히려 늦게 나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럼요 감사하지요 그리고 재네 회원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애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하죠.(참여자 4)

3.1.2.2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됨

참여자들은 조현병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로 인해 처음에는 당황하고 속상해 했으나, 정신질환도 하나의 병임을 알게 되고 치료 및 재활서비스 기관을 통해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 즉,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자녀를 더 진실하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다.

애는 이상이 있는가 보다하고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었더니, 갑자기 말도 안하던 애가 '엄마~'하고 정상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약이 좋은가 봐요.(참여자 2)  
제가 ○○이 교육을 좀 잘 못시킨 게, 밥도 다 차려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다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손 하나 까딱 안하려고 그래요...그때 강의 듣고 나서 정말 애를 고쳐야겠다. 내가 강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참여자 3)  
우리 아이들은 물론 다들 성장과정이 다 다르고, 왜 저병이 왔을까 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뇌의 기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체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더라고요.(참여자 4)

3.1.2.3 남은 자녀들에게 고마움

참여자들은 어머니가 된 그 날부터 자녀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 사람 또한, 자녀들이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래도 우리 막내아들이 약 지으러갈 때 따라 가주고...  
다해요. 지가 또 보호자고 그러니까. 엄마 보호자고 형  
보호자니까 다니면서 다 하죠. 고맙죠. 우리 막내가 제  
일이야...(참여자 5)

애들이 그렇게 착실했어요...그래서 애들이 착실하고 그  
렇다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없이 살아도 애들이  
착하게 잘 자라주고 그랬는데...그렇게 일하고 돌아올  
때면 형하고 골목에 앉아서 장난하다가 내가 오면 엄마  
~ 하고 달려와. 그 맛에 살았지.(참여자 1)

그래도 잘 사니까 그걸로 만족해요. 요새 이혼율도 높고  
하는 때인데,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서 그걸로 감사하  
죠...아들딸 제 할 것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감사  
~ 감사하죠.(참여자 1)

#### 3.1.2.4 주변인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함

참여자들은 살아오는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심리  
적 갈등과 고통 속에서 혼자 힘겨워 하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고, 출가한 형제들이 안쓰러워하며 위로  
해주었던 것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근데 우리 신앙이 나를 많이 감싸줬죠. 그러니까 살았는  
가도 몰라. 감사한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만  
이 더 크니까...(참여자 2)

옛그제는 캐나다에 사는 언니가 하도 불쌍하니까 한 달  
간 쉬었다 가라면서 나를 이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서 언니가 비행기표하고 여권까지 다 준비해줬는데.(참  
여자 2)

(면담에 응해준 것에 감사하자)감사는 무슨~, 오히려  
센터에서 이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애들을 봐주시는데  
감사하지요. 선생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도움  
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감사하지요.(참여자 4)

#### 3.1.2.5 불평과 원망이 나를 병들게 함을 깨달음

참여자들은 살아오는 동안에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생긴 불평이나 원망이 자신들의 정서 관리를 방해하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닫게 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참여자들은 불평이나 원망이 오  
히려 자신의 몸과 맘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  
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떨 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꼴도 보기 싫고 미워요...근  
데 뭐 지나간 거 자꾸 얘기하면 뭐해요, 상처만 되고 내

기슴만 아프고 나만 몸이 상할 뿐이죠.(참여자 3)

그래서 지금은 시어른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  
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안부전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예전에는 규칙적으로 예의로 했는데, 지금은 아프  
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 조언도 해드리고(진심에  
서 우리나라의 관심)...(참여자 3)

시댁 얘기를 하면 제가 이를 갈면서 했거든요. 오죽하면  
시어른들이 어디라도 가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  
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다보니까  
육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참  
여자 3)

#### 3.1.2.6 신앙에 의지하여 지킨 삶

참여자들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절대  
신을 찾았다. 그리고 신앙과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  
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평생에 한 일 가운데 제  
일 잘 한 일이 신앙을 가진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내가 성당을 안 다녔으면 마음을 못 썼을 것 같아요. 평  
생에...(아들)이 저리고 있으니까 잠은 안 오고... 그런데,  
신부님 말씀이 좋고, 내가 여기서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신앙을 갖게 된 게 감사하죠. 신앙이 없었으  
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겼을까.(참여자 1)

(감사했던 사람은)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성모마리아께 감사해요... 제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쌓인 제 마음을 다 풀어 주신 게 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목소리 흔들리며, 울먹거리며)...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이로 인해서 기도를 하면서, 제 반성을  
많이 했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많이 풀렸어요.  
(참여자 3)

#### 3.1.3 포용을 통해 나무로 자란 감사

##### 3.1.3.1 미움이 사라지고 이해가 됨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잊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세월의 흐름과 서로간의 변화로 어우러져 용서하게 되었  
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게 되었다.

시할머니가 우리 시어머니를 엄청 구박한 거예요. 시집  
살이가 대물림 되었던 거 같아요...내가 (시집에)들어가  
니까 이제 시할머니한테 당한 모든 것을 그냥 보복이라  
도 하듯이, 화풀이를 다 한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갱년기였던 거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우  
리 시어머니 왜 저러나~ 했는데, 내가 지금 갱년기 겪  
다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참여자 2)

3.1.3.2 타인을 용서하게 됨

참여자들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면서 점점 타인에 대한 미움이 소멸되었고, 진심으로 우리나라오는 관심과 연민으로 편안하게 상대를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강사님들이 와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그분들 얘기를 듣고 제가 감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아버지... 신랑 용서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용서기도를 하다가 용서가 되더라고요.(참여자 3)  
그래서 지금은 시어른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이제는 제가 시부모님들 용서 기도를 하면서부터 미움이 제 마음에서 많이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 식구들을 보면 그들이 많이 불쌍해 보여요.(참여자 3)

3.1.4 자족과 바람의 열매를 맺은 감사

3.1.4.1 자녀의 질환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

참여자는 조현병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과 태도가 자녀와 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후회나 원망보다 오히려 자기를 성찰하게 되었고, 맘이 편안해져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자족할 수 있으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나를)건강하게 해 주신 거 감사하죠. 이런 상황에서 병들어 누워있거나 그러면 가정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요. 아직 다 뺏어가지는 않았구나! 건강만큼은 남겨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참여자 2)  
제가 예전에 많이 화려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죽었죠. 남이 봤을 때 좀 편안하게 보였으면 좋겠고요...안정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이가 아프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딸아한테 ‘○○야 네가 내 선배고 스승이다.’ 이렇게 해요.(참여자 3)

3.1.4.2 외면했던 나를 바라봄

참여자들은 여러 상황들을 겪는 과정에서 본래 자신의 성격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며 조금씩 변해왔다. 이제 참여자들은 자녀와 타인에게 집중했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 본인의 욕구와 기호를 살피고 더욱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용기를 갖고 노력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제가 예전에는 욕심도 많았어요, 자존심도 췌고, 남보다 못한 것은 참지를 못했거든요...이러면서 제가 자존심

이런 거도 하나씩 버리고,  
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속도 참 편안하네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형제간에도 못해요. 가족들한테도 못 말해요.(참여자 2)  
직장 들어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컴퓨터를 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내가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이제 배워서 직장 준비하고 있어요.(참여자 2)  
제가 심리 상담을 좀 받았거든요. 가서 상담 하고 나면 마음의 평화가 좀 찾아오고. 그러지요.... 가끔 이렇게 풀어주면 제가 활력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참여자 3)

3.1.5 베품으로 인해 더 풍성해진 감사

3.1.5.1 정신질환자 어머니들에 공감

참여자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조현병 자녀를 돌보면서 감사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깨닫고 얻은 것들을 본인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힘겨운 사람들일수록)그걸 털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저도 우리 윤행이 말을 정말 못했거든요. 진짜~ 우리는 (정신질환의)종류는 다른 것 같은데 동질감을 느낄 수 있지요.(참여자 3)  
다른 부모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 엄마들도 마음이 죽을 때 까지 편하지 못하겠구나하고 생각하니까 한번이라도 (모임에)더 나오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나오면)대화가 되고 좋아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못하고 다녀요. 여기니까 아픈 마음 알아주니까 공감하는 거죠.(참여자 2)

3.1.5.2 감사와 사랑의 환류를 믿음

참여자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대할 때, 타인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물질적인 것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용서가 가야 사랑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딸한테도 가게 되더라고요...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애들이 많이 배우는 거 같아요. 뭐라나 물질적인 것을 해준 게 아니라 정신적인 믿음을 이렇게 제가 애들한테 감동 주고 하는 건 없는데~(호호) 그냥 전연되듯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부모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참여자 3)

### 3.2 감사 경험에 대한 일반적 구조기술

참여자들의 진솔로부터 확인한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통합하여 조현병 자녀 어머니의 감사경험은 감사할 것 없이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 같은 나(원망), 새싹처럼 움트기 시작한 감사(수용), 포용을 통해 나무로 자란 감사(용서), 가족과 바람의 열매를 맺은 감사(소망), 베품으로 인해 더 풍성해진 감사(나눔)의 5가지 구성요소로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 Components and Sub-components

Sub-components	Components
Burden that can't be put down throughout lifetime	I'm like fallen seed on barren soil without gratitude (Resentment)
Regretful years	
Resentment about the onset of mental illness	
Pain in caring process	
Enduring for Schizophrenic Children	
A life of destitution beyond recourse	Gratitude coming into budlike (Acceptance)
Warm eyes to Schizophrenic Children	
Understanding mental illness	
Gratitude for children who are left	
Gratitude for interest and consideration of surrounding people	
Realization that complaint and resentment are poisonous	
Life relied on by faith	
Hatred disappears and to be understanding	Gratitude grown up into a tree through embracing (Forgiveness)
Forgiving Others	Ggratitude bearing fruit of self-sufficiency and desire (Wish)
Reflected me due to my child's illness	
looking for the peace and meaning of life	Gratitude getting much richer with giving (Sharing)
Appearing heart to give others	
Thinking that gratitude is delivered	

참여자에게 감사는 어색하고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는 무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감사는 자녀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때부터 오늘까지 견디며 살아올 수 있는 힘으로 척박한 땅에 가려진 작은 씨앗처럼 공존하고 있었다. 어릴 때 누구보다 총명하고 건강했던 자녀는 어머니의 기쁨이고 희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실망과 좌절로 무거운 돌처럼 부담감이 되어 어머니의 가슴을 짓누른다. 자녀의 발병과 관련된 요인이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과 학교 교사라고 생각하며 그들에 대한 원망은 쉽게 사라

지지 않는다. 그리고 빈번한 재발과 회복의 지연으로 실망과 좌절로 점점 치져가고 있다. 사회에서도 정신질환 자체가 편견의 대상이므로 차라리 감추고 스스로 대인관계를 피하는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도 조현병 자녀의 주 돌봄은 어머니의 몫이 되고 있다. 가족들을 위해 인내하며 살아오느라 한 순간도 자신을 앞세워 본 적 없던 이들은 자녀의 발병 이후 자신의 삶을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남편이 조금만 공감해주었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형제들이 내 수고를 조금만 인정해주었더라도 이렇게 원망과 한이 되진 않을 텐데...'라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신에 대한 원망 뒤에는 감사를 찾고 싶은 바람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회와 원망, 고통과 얽매임의 눈물로 얼룩진 삶 속에서도 물과 빛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틀면서 올라오는 새싹 같은 '감사'가 있었다. 조현병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며 상호작용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병에 대한 이해도 커가면서 자녀가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에 당당히 직면하고 대처하려는 노력도 시도해 보게 된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울고 속상한 일로 괴롭고 힘든 때도 있지만 이 때, 힘과 용기를 주었던 대상 또한 바로 자녀들이었다. 시간의 흐름과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경험들로 인해 어머니들은 불평이나 원망 그리고 분노가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조현병 자녀 어머니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베푸는 주변인들은 사회의 차가운 편견과 지나온 삶에서의 설움도 달래줄 수 있는 고마운 존재이다.

참여자들은 전생애적 관점에서 신체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영적으로 다양한 경험의 기복을 가지고 있다. 이제 분노와 감사에 대한 자각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용서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고 '새싹처럼 올라온 감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종교에 의지하여 용서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원망이 점차 풀어지면서 용서가 가능해졌고, 한번 시작된 용서는 '나무로 자란 감사'를 경험하게 했다. 항상 불편하고 짓눌렸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친 일상들이 새로운 감사로 느껴지게 된다. 평범한 삶을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던 조현병 자녀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이를 통해 감사함을 느꼈다. 지난 추억들도 이제는 감사의 열매가 되고 있음을 느끼며, 자녀의 발병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본 적 없지만, 자기 성찰을 통해 감사를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아픈 자녀와 가족에게만 고정되었던 시선



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자기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긍정적 자기변화를 드러냈다. 나아가 자녀 문제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어머니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어 그들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이타심을 갖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감사경험은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감사경험 속에서 내·외적 영향을 통해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의 순환과정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 4. 논의

본 연구에서 드러난 조현병 자녀 어머니의 감사경험은 자기의 내적 요인에 근거하는 것과 타인을 비롯한 외적 요인에 근거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고, 각각의 구성요소별 특성과 함께 구성요소간의 통합적인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원망과 불평의 상황들로 보지 못했던 감사가 조현병을 알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자라기 시작하여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지만 감사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 소망을 품게 되면서 이렇게 받은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 공유하고 싶은 나눔의 마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하이데거의 존재론[20]에 근거를 둔 현상학적 연구라는 것과 그 맥락이 잘 연결되며, 어떤 특정한 유형의 태도에서 다른 태도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기 위해 현상학적 환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감사는 긍정적 심리 특성의 하나로 상호작용의 표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훈련과 습관형성으로 성장하는 속성이 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어머니의 감사경험을 통해 드러난 구성요소를 감사 속성과 비교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상호작용의 표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대인관계를 통한 만족에 두고 있는 Peplau[11]의 대인관계 상호이론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조현병 자녀 어머니의 감사(배려)는 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상호작용 경험에 직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원망을 타인과 자신 그리고 신을 향해 눈물로 여한이 없도록 쏟아 부으며 충분한 상호작용의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난 후에야 황무지 속에서 움트고 있는 새싹처럼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Kim & Han[21]에서 참여자들이 그동안 억눌린 감정

으로 살아온 설움과 아픔을 신 앞에서 눈물로 토하고 난 후 불편함이 해소되고 자유스러워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시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신체, 정신, 사회적 경험을 넘어 보이지 않는 자기 정서와 영적인 경험 속에서의 상호성이 드러나 조현병 자녀 어머니를 전인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상담하는 중재가 필요하다.

둘째,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란 개인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부정적이었던 생각, 감정,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북돋워주는 에너지이며, 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12]. 참여자들의 감사경험은 전 생애적 삶의 관점에서 원망, 수용, 용서, 소망, 나눔의 감사가 점진적으로 자라나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치유와 성장[22],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유사한 상황에 처한 조현병 자녀 어머니들의 집단모임[21]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한 감사경험의 단계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격려 및 동기부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훈련과 습관 형성으로 단계별 성장'은 내 옷이 아닌 듯 잘 맞지 않고 말이나 행동으로 잘 표현되지 않던 감사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잘 맞는 옷처럼 자기 습관이 형성되어 감사의 수준이 단계별로 성장해가는 것을 의미한다[12].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감사의 요소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스스로 습득해가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감사는 어떤 조건과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선행조건으로서 행동 수준으로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개인의 자아와 인식,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감사훈련 및 습관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변화,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23] 및 적용의 근거가 된다. 이에 조현병 자녀 어머니 감사경험의 단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훈련의 기간과 적용시기,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 및 조건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24]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성 조현병 자녀 어머니들의 감사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로 나타난 참여자들의 감사경험이 원망, 수용, 용서, 소망, 나눔의 순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상담과 개별 또는 집단교육 및 증재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제한점을 토대로 조현병 자녀 아버지의 감사경험 연구와 돌봄 기간에 따른 경험적 차이를 고려하여 조현병 초발자 어머니의 감사 경험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더불어 조현병 자녀 어머니의 감사 경험과정이 긍정적 순환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증재와 교육 및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J. S. Kw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ral disorder, 5th ed.* 99-104, Seoul : Hakjisa.
- [2] H. GEB. Kang., H. R. Jung, J. Y. Lee, S. Y. Kim, J. M. Kim, J. S. Yoon & S. W. Kim. (2018). Associations Between Family Relationships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24(3)*, 163-172.
- [3] M. Richardson, V. Cobham, B. McDermott & J. Murray. (2013). Youth Mental Illness and the Family : Parents' loss and Grief.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 719-736.  
DOI : 10.1007/s10826-012-9625-x
- [4] AM. Möller-Leimkuhler & A. Wiesheu. (2012). Caregiver Burden in Chronic Mental Illness: the Role of Patient and Caregiver Characteristics.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62(2)*, 157-166.  
DOI : 10.1007/s00406-011-0215-5.
- [5] S. K. An. (2016). Violent behavior in individuals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59(12)*, 947-952.
- [6] E. J. Choi. (2018). Lived Experience of Primary Caregiver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y.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7(2)*, 146-158.  
DOI : 10.12934/jkpmhn.2018.27.2.146
- [7] S. H. Kim, S. S. Oh & E. H. Lee. (2005). The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Quality of Life: Focused on Stress Coping Strategy, Symptom, and Family Suppor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1)*, 73-87.
- [8] V. E. Frankl. (1959). *Man's Search for Ultimate Meaning*. New York : Perseus Books.
- [9] E. Kübler-Ross. (2008). On death and Dying. Lee J, translator: Sopol: Jireh: 2008.
- [10] R. A. Emmons & R. Stern. (2013). Gratitude as a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8)*, 846-55.  
DOI : 10.1002/jclp.22020.
- [11] HE. Peplau. (1952).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Offer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Psychodynamic Nursing*. New York: G.P. Putnam's Sons.
- [12] J. E. Hong & J. S. Lee. (2014). Concept analysis of gratitud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3(4)*, 298-309.  
DOI : 10.12934/jkpmhn.2014.23.4.298
- [13] L. Bolier, M. Haverman, GJ. Westerhof, H. Riper, F. Smit & E. Bohlmeijer. (2013).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s: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BMC Public Health, 13(119)*, 1-20.  
DOI : 10.1186/1471-2458-13-119.
- [14] J. S. Yun & K. B. Kim. (2014). Joys and Sorrow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2)*, 81-92
- [15] S. H. Kim. (2015). An Ethnographic Research on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Mothers Caring for their Children with Recurent Cancer. *Asian Oncology Nursing, 15(2)*, 75-88.  
DOI : 10.5388/aon.2015.15.2.75
- [16] S. A. Jo & A. S. Kim.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Recep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Anger Regulation in Adolesc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Soothing and Empath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5)*, 303-331.
- [17]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0.  
DOI : 10.1163/156916297X00103
- [18] J. Modestin, A. Huber, E. Satirli, T. Malti & D. Hell. (2003). Long-term course of schizophrenic illness: Bleuler's study reconsidered. *The America Journal of Psychiatry, 160(12)*, 2202-2208.  
DOI: 10.1176/appi.ajp.160.12.2202
- [19] YS. Lincoln, E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20] Y. J. Park. (2019). Lacan's Unconsciousness Phenomenology and Heidegger's Ontology. *Culture and Convergence, 41(3)*, 103-128.
- [21] B. S. Kim & J. H. Han. (2013). A Study on the Psychosocial Phenomenon of Christian Mothers Who have Cared Patient with Chronic Mental Illnes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24(3)*, 9-43.
- [22] E. S. T Kim & J. K. Kim. (2019). The Effect of Grateful Disposition on The Posttraumatic Growt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Ego 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4(2)*, 451-468.
- [23] E. J. Moon. (2014). Gratitude Program Development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1(3)*, 541-562.

- [24] J. H. Kim & H. J. Na. (2017). Effects of a Positive Psychotherapy Program on Positive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Recovery in Community-Dwelling People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5), 638-650.  
DOI : 10.4040/jkan.2017.47.5.638

홍 주 은(Ju-Eun Hong)

[정회원]



- 1996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임상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6년 2월 ~ 현재 :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학, 긍정심리, 의사소통
- E-Mail : nurse0413@dyu.ac.kr